

# 21세기 산업사회와 韓國경제의 진로

李 炯 九

〈한국산업은행 총재〉

이 자료는 지난 11월 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산업은행주최의 「21세기를 향한 산업발전 전략」 세미나에서 발표된 논문을 전재한 것임.  
〈편집자註〉

## I. 머리말

- 아놀드 토인비가 지적한 대로 인류의 역사는 「도전과 응전」의 역사이며, 수많은 도전에 성공적으로 대응한 국가와 민족만이 번영과 발전을 구가하였다는 것은 역사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고 할 수 있음.
- 앞으로 8년 후면 전개될 21세기는 지난 2000년을 마감하고 새로운 100년을 시작하는 시간적인 분수령이 된다는 의미이외에도 세계의 거의 모든 나라와 민족들에게 새로운 도전과 응전의 기회를 제공하는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음.
  - 또한 인류가 극복하여야 할 도전의 대상이 지구상의 자연에서 우주로 그 영역이 실질적으로 넓어지는 도약의 세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세계질서는 지금까지와 같은 軍事力을 바탕으로 한 힘의 논리보다는 각 나라가 自國과 自國民의 이익을 기준으로 수시로 만나고 헤어지는 형태를 취할 것으로 전망됨.
  - 격변하는 국제정세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각 나라들의 노력도 한층 강화될 것임.
- 기술전망은 21세기에는 그 속도가 더욱 빨라져 앞으로의 100년간은 지난 2000년동안에 인류가 이룩한 것 보다 더욱 방대한 것이 될 것임.

- 기술전망에 힘입어 새로운 고도산업사회가 전개될 것이며 인간의 생활은 더욱 풍요로움을 구가하게 될 것임.
- 범세계적인 산업화의 진전에 따라 환경오염방지과 이를 통한 생활환경의 보전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질 것임.
- 우리 민족에게는 현재의 경제전망의 활력을 유지하면서 세계발전을 선도하는 국가로 부상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21세기가 될 것으로 전망됨.
  - 21세기에 펼쳐질 산업사회의 모습을 조망하고 우리경제의 나아갈길을 모색하는 것은 우리 민족이 다른 민족에 앞서 선진 한국으로의 도약을 위한 준비를 한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음.

## II. 21세기 산업사회의 전망

### 1. 힘의 균형의 시대에서 이익의 균형의 시대로

- 21세기는 이념과 군사력에 바탕을 둔 「힘의 균형」의 시대에서 경제적인 이익에 바탕을 둔 「이익의 균형」의 시대로 전환될 것으로 전망됨.
  - 각국들의 정책대응은 정치적인 이념과 같은 국가간의 결속기준이 없어짐에 따라 국가간의 긴밀한 정책적인 협조 보다는 自國과 自國民의 이익을 기준으로 하여 필요에 따라 임기응변적으

로 대응하는 양상을 보일 것임.

○ 향후의 세계질서는 다극화가 진전되는 가운데 美國의 지도력하에 불완전한 單極체제가 당분간 유지될 것으로 전망됨.

- 소련은 금년 8월 쿠데타불발 이후 연방체제가 사실상 해체됨으로써 미국에 대응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국가로서의 지위가 크게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 獨逸과 日本은 경제력은 보유하고 있으나 군사력의 뒷받침이 없는 약점을 갖고 있음.

- 美國은 경제력이라는 면에서는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약화되어 왔으며, 현재도 경제적인 활기가 되살아나지 않고 있어 세계질서 유지에 필요한 경제적인 뒷받침이 충분하지 못한 실정임.

· 실제로 금년 봄의 걸프戰에서 美國이 부담한 전쟁비용은 전체 전비의 약 20%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음.

○ 지금까지 세계질서를 유지하는 기축이 되었던 美國과 蘇聯이라는 절대적인 힘이 약화됨에 따라 세계적 차원의 분쟁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나 국지적인 분쟁은 빈발할 것으로 예상됨.

- 핵무기 또는 생화학무기 등 인간의 생명에 치명적인 영향을 줄 무기의 개발 및 보유에 소요되는 비용이 기술전망의 가속화에 따라 크게 줄어들고 있어 국지적인 분쟁도 전세계에 주는 충격은 엄청날 것으로 생각됨.

## 2. 지역경제권의 부상과 세계경제질서의 변화

○ 20세기 후반의 세계경제질서는 세계경제에 있어서 美國의 역할변화에 따라 변모되었다고 할 수 있음.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美國은 절대적인 경제력의 우위를 바탕으로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재건과 자유무역주의의 구현을 위해 국제통화제도 측면에서는 달러를 기축통화로 하는 IMF 체제를, 무역측면에서는 GATT 체제를 출범시켰음.

- 美國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던 이와 같은 세계경제질서는 미국경제의 상대적인 지위 약화와 日本, EC, 아시아 신흥공업국 등의 급속한 경제

성장으로 구조적인 변화를 맞게 되었음.

○ 향후 21세기의 세계경제질서는 냉전체제의 종식에 따른 세계정치질서의 변화와 경제권역간의 경제적인 활력의 격차에 따라 EC의 경제통합과 같은 실리위주의 지역경제권의 형성이 두드러질 것임.

○ 기존의 세계경제질서 유지의 기본틀인 IMF-GATT 체제는 종래와 같은 원만한 정책적인 협조와 강력한 결속력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됨.

- 즉 蘇聯의 사회주의 경제이념의 포기에 따라 자본주의 경제권에 대응한 경제적인 세력은 사실상 사라졌다고 할 수 있으며, 전세계가 실질적으로 하나의 시장경제권으로 통합됨으로써 자본주의 경제권의 결속을 강화시켜 주는 動因이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 蘇聯은 이미 자본주의 경제체제의 중심기구인 IMF에 특별회원의 자격으로 가입하였으며, 캄보디아와 베트남도 시장경제체제의 도입을 시작함.

- 세계경제의 다극화추세는 필연적으로 각 경제권역간의 마찰과 갈등의 심화를 초래할 것이므로 이에 대응하여 우루과이라운드와 같은 다자간 무역협상을 통한 새로운 규범의 정립을 위한 노력이 한층 강화될 것임.

○ 국제 통화질서도 기존의 美國달러중심체제에서 日本의 엔貨, 독일의 마르크貨 등 선진국통화의 공동중심체제로 변모할 것임.

- 독일 마르크貨의 세계경제에서의 역할은 이미 유럽 통화제도(EMS)의 중심통화로 인정을 받고 있으며, 獨逸통일 이후 그 비중이 날로 높아 가고 있음.

- 엔貨의 세계경제에서의 비중은 첨단기술산업의 비교우위 확보와 아시아경제에서의 역할 증대로 급격히 높아지고 있음.

· 日本은 아시아圈에서의 집중적인 투자로 역내분업구조를 재편해 나가려고 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결제통화로서의 엔貨의 위상이 제고되고 있음.

○ 한편 경제권역간의 경제적인 활력의 변화에 따라 경제의 상호의존도가 높은 국가들간의 이해증진

도모를 위한 지역적인 경제협력 움직임이 크게 강화될 것임.

- 현재 지역경제권의 형성 움직임은 유럽의 EC를 필두로 하여 전세계에 걸쳐 진행되고 있음.
- EC는 1992년까지 경제적인 분야에서의 완전통합을 추진하고 있음.

- 최근에는 유럽지역의 또다른 경제블록인 EFTA(European Free Trade Agreements)를 포함한 새로운 경제통합체인 EEA(European Economic Area)의 추진을 시도하고 있으며, 현재의 계획대로 EEA가 창설될 경우 GNP, 인구, 수출등 모든 면에서 세계 최대의 경제

권역이 될 것임.

- 北美에는 美國, 캐나다, 멕시코 등 3國의 시장을 통합하는 「北美自由貿易地域協商」이 미국의 주도하에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음.

- 아시아지역에서도 이미 60년대 중반부터 日本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環太平洋經濟圈 구상, ASEAN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東아시아 경제그룹등 다양한 논의가 있었으나 실질적인 진전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 날로 가속화되고 있는 경제의 지역주의화 경향은 기본적으로 그 지역 국가들의 경제적인 활력의 회복을 위하여 역내국 우대, 역외국 차별을 지향하

<표-1> 주요 경제블록의 발전추이

유 럽	북 미	환 태 평 양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주공동체 (1958)</li> <li>· 구주통화제도 (1979)</li> <li>· 단일유럽의정서 발효 (1987)</li> <li>· 금융통합법 마련 (1991)</li> <li>· EFTA와 EC 통합 합의 (199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미·캐 FTA 협정 (1989)</li> <li>· 미·캐·멕시코 FTA 합의 (1991)</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ASEAN 결성 (1967)</li> <li>· 태평양무역개 발회의 (1968)</li> <li>· 태평양경제협력회의 (1980)</li> <li>· APEC 결성 (1989)</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경제의 완전통합 (199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미 5개국포함 범미주 시장 결성 (1996)</li> </ul>	

<표-2> 環太平洋經濟의 세계에서의 위상

-	環太平洋							EC	세계
	北美	日本	NICS	ASEAN	中國	濠州			
GNP 比重	54.7	31.0	16.7	2.1	1.3	2.2	1.4	24.9	100

<주> 1988년 기준임.

고 있어 경제블록간 무역마찰의 심화를 촉발할 것으로 전망됨.

- 지역경제권중에서 環太平洋經濟는 현재 역사상 가장 빠른 경제성장을 이룩하고 있어 향후 세계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더욱 높아지고 21세기의 세계경제의 성장을 주도하게 될 것임.
- 최근에는 아시아의 신흥공업국 뿐만아니라 ASEAN을 중심으로 하는 New NICs도 높은 경제성장을 이룩하면서 세계경제를 선도하고 있음.
- 21세기에 예상되는 환태평양경제권의 활기찬 경제성장은 환태평양경제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경제발전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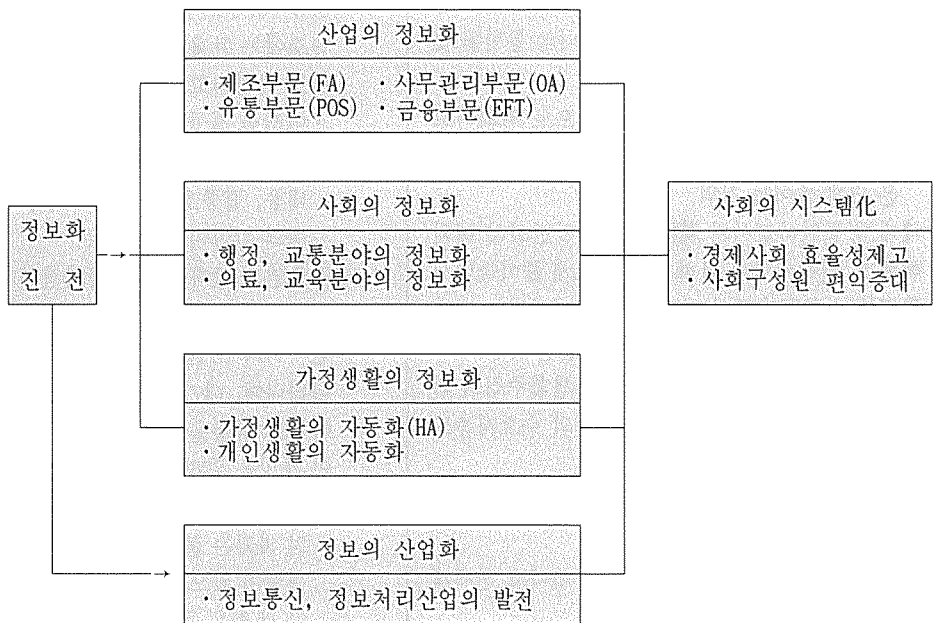
### 3. 기술혁신시대의 거래와 산업구조의 변화

- 21세기는 기술의 혁신적인 발전과 이에 따른 고도 산업사회의 전개가 특징적인 현상이 될 것임.
-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기술혁신은 향후 그 자체의 새로운 產業群을 발생하게 하는 한편 기존의 在來產業에도 광범위하게 응용·점목되어 재래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그 결과 산업구조를 질적·양적으로 크게 변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 21세기에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주된 기술발전의 영역은 인공지능과 자동화기기의 개발 등 주로 컴퓨터등 하드 분야와 이의 운용수단인 소프트웨어 관계기술의 효과적인 결합이 될 것임.

- 기술발전의 가속화는 경제구조에도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될 것으로 전망됨.
  - Real Sector가 쇠퇴하고 이른바 Symbol Sector가 경제의 주도적 역할을 하는 시대로 변모될 것임.
    - 즉 농업, 제조업 등 實物財貨를 생산하는 산업과 이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산업이 경제활동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줄어드는 반면 금융등 화폐 및 신용을 대상으로 한 서비스산업의 중요성이 증대될 것임.
- 생산에서 차지하는 요소별 영향은 노동력 및 자원과 같은 전통적인 생산요소의 비중이 줄어들고 물론 각각의 생산요소가 갖는 중요성보다는 각각의 생산요소를 한데 엮어 효율을 증대시키는 노우-하우인 Management의 역할이 한층 제고될 것임.
  - 따라서 향후의 경제전쟁은 지난 70년대와 같은 자원을 무기로 하는 형태가 아니라 기술, 지식 및 경영전략등이 무기가 되는 형태로 변모할 것임.
- 국제간의 자본이동도 현재와 같은 실물의 이동에 수반되는 것이 주종을 이루는 형태에서 향후에는

- 법제제적인 자본자유화의 추세와 함께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자본자체가 높은 수익을 쫓아 이동하는 형태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됨.
- 산업생산체제는 종래와 같은 少品種 대량생산위주의 메스프로덕션체제에서 多品種·소량생산체제로 변화될 것임.
  - 이에 따라 종래까지 일반적인 경제원칙으로 인식되고 있던 「규모의 경제 (Scale of Economy)」의 개념도 크게 변모될 것임.
- 기술혁신추세의 가속화로 산업의 질적인 개선의 방향은
  - 신기술을 응용한 고기능 고부가가치제품의 개발이 활기
  - 전자와 소프트웨어기술의 결합을 통한 각종 기기의 결합도의 제고
  - 각 경제활동 단위간의 효율 증진을 위한 온라인 네트워크 구축
  - 서비스산업의 성장 및 제조업에 대한 서비스기능의 투입증가
  -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원의 효율적 조달을 위한 국제화 등이 될 것임.

〈그림-1〉 정보화의 진전과 21세기 산업사회의 변모



-산업의 질적인 변화를 고려할 때 21세기의 유망 산업은 현재 발전의 초기에 있는 신소재 관계기술, 초전도체 재료, 유전공학, 자동화, 정보처리 등 지식집약적인 분야가 될 것임.

○ 특히 통신 및 컴퓨터기술의 발전에 따라 현재 각 분야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각종 정보화가 한군데로 통합되는 사회의 시스템화는 21세기 산업사회의 물결을 주도할 것임.

-사회의 시스템화는 인간의 생활뿐만 아니라 산업생산체계까지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임.

-산업의 정보화는 팔목할만한 발전을 이루어 생산과정에서 필요한 모든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총체적 경영관리시스템으로 발전할 것임.

-정보화는 광의로는 정보를 기반으로 하는 사회 변화를 의미함.

- 최근에는 데이터 베이스산업의 등장 등 정보의 산업화, FA, OA 등을 이용한 산업의 정보화, Home Banking 및 Home Shopping 등 가정의 정보화, 행정정보통신시스템 등 사회의 여러 분야에서 정보화가 진행되고 있음.

#### 4. 글로벌화의 지속적 진전

○ 원거리 정보통신망과 교통수단의 획기적인 발달에 따라 향후 21세기에는 Globalization이 더욱 급격히 진전되어 명실공히 세계가 하나로 통합될 것으로 전망됨.

-국가간의 국경의 개념이 실질적으로 약화되고 국가가 담당하는 산업 및 개인생활에서의 역할은 크게 줄어들 것임.

○ 세계 공통언어로서의 英語사용의 일반화와 해외 여행 및 거주지역에 대한 제약이 크게 줄어들면서 異民族과 異國家間의 이해의 폭이 넓어지고 세계인의 의식구조의 공통화현상이 발생할 것임.

-종족과 종교를 초월한 세계 공동생활주식의 탄생을 예견되고 있으며 각종 상품의 수요계층도 전세계로 확대될 것임.

○ 기업경영의 영역이 한나라에서 전세계를 대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됨.

-기업은 한나라에 소속된 기업이 아니고 전세계의 기업이 될 것임.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원의 조달과 운용, 신제품의 개발은 세계인의 嗜好를 고려하여 추진될 것임.

-기업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져 어떤 기업도 끊임없는 이노베이션과 혁신적인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지 않는다면 기업간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없게 될 것임.

-국경을 초월한 기업간의 결합과 제휴가 활성화되어 특정품목에 대하여는 특정 유력사회가 전세계의 시장을 지배하는 시대가 될 것임.

#### 5.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의 강화

○ 산업의 발전에 따른 환경오염의 방지와 인간의 생존의 터전인 환경의 보전이 온인류의 최대의 관심사중의 하나가 될 것임.

-지구는 인간에게는 하나뿐인 생활의 터전이며, 환경의 오염은 인류의 생활여건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 실제로 최근 빈발하고 있는 자연화재의 발생과 새로운 형태의 질병의 발생은 지구환경의 오염의 결과일 수도 있는 것으로 추정됨.

-예를들면 지구상의 평균기온은 이산화탄소등 배출가스의 증가로 과거 100년동안에 섭씨 약 0.3~0.6도가 높아졌으며, 2025년 또는 2035년경에는 현재보다 0.5~1.5도 정도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이러한 지구기온의 상승은 해수면을 높여 인간의 생활터전인 육지의 면적을 크게 줄이고 태풍, 집중호우, 이상고온, 한발 등 자연재해의 원인이 되고 있음.

○ 환경오염의 방지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도 한층 강화될 것임.

-한나라의 오염물질의 배출은 인접국의 피해로 나타나며, 대기오염의 경우 그 영향이 전세계에 미치는 경향을 보이고 있어 환경오염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하여는 국가간의 협조가 절실함.

- 프레온가스의 과다 사용에 따른 南極 오존층의 파괴는 불특정 다수인의 피부암을 유발할 위험이 있으며, 독일공업지역의 유황가스 과다 배출은 동구권국가들의 삼림을 황폐화시

김.

- 산업사회의 모습은 환경오염규제의 강화에 따라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투자수요 증대와 환경오염과 관련된 제품의 생산상의 제약 등으로 상당한 변모를 일으킬 것으로 전망됨.
- 환경을 오염시키는 제품에 대한 생산은 금지되는 품목이 늘어 날 것이며, 환경을 오염시킨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기업은 영업활동에도 큰 어려움을 겪을 것임.
  - 실제로 프레온가스는 몬트리올 협약에 따라 자동차, 냉장고등의 冷媒로 사용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의 대용물질의 개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후진국들은 同製品의 생산과 수출입이 위축될 것으로 예상됨.
-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기술개발과 방지비용, 오염으로 유발된 각종 질병 및 직업병에 대한 보상요구와 이에 따른 비용도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공해다발기업은 주민들의 반대로 세계 어느 곳에서도 적당한 입지를 구하기가 어렵게 될 것임.
-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각종 기기와 기술은 이미 상당한 규모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으며, 21세기에는 그 규모가 더욱 확대되어 유망성장산업으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됨.
- 정부 및 국민의 관심이 경제전망 우선에서 환경보호로 쏠릴 것임.
  - 정부에서는 환경기술자 육성, 환경오염측정기술의 개발, 환경오염유발에 관한 정확한 자본모집등을 통한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추진할 것임.

## 6.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와 문화의 발전

- 앞으로 전개될 21세기는 기술과 경제발전이 가속화되면서 인간의 라이프스타일은 量的인 증대보다는 질적인 개선을 추구하게 될 것임.
  - 이에 따라 획일적인 생활양식은 크게 줄어들고 다양성과 개성을 추구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것임.
    - 문화와 예술을 즐기는 방식도 개인의 기호에 따라 선택적인 경향을 보일 것이며, 20세기

사회의 특징인 *Mass-Communication*의 시대는 종언을 고할 것임.

- 기술발전과 산업사회의 고도화가 진전되면서 인간의 존재의미를 다시 음미하게 될 것이며 이에 따라 예술과 정신적인 영역에 대한 관심이 한층 제고되고, 문화의 발전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져 제 2의 르네상스시대의 도래가 예상됨.
- 依·食·住와 같은 인간생활의 제약요인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어 인간의 활동이 생존을 위한 차원을 넘어 풍요로움을 즐기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임.
  - 인간의 평균수명이 의료기술의 획기적인 발전과 영양상태의 개선에 따라 크게 연장될 것임.
  - 여성의 사회활동의 영역이 정치, 경제, 문화 등으로 폭넓게 확산되면서 인류의 잠재력이 최대한으로 발휘될 것임.
  - 인간의 생활이 질적인 면의 개선을 크게 추구하게 됨에 따라 한 사람이 소비하는 에너지, 음식물 등 각종 자원의 소비량이 크게 늘어날 것임.
- 인간의 거주형식은 지금까지와 같이 태어난 나라에서 정주하는 형태에서 벗어나 생활의 편의에 따라 수시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일 것임.
  - 농촌지역에서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은 점차 줄어들고 도시와 도시근교에서 거주하는 인구의 비중이 크게 높아질 것임.
  - 해외여행등 이동의 목적은 생존의 차원이 아닌 생활을 즐기기 위한 것이 주가 될 것임.
- 라이프스타일의 변화는 기존산업의 사양화와 새로운 유망산업의 등장을 촉진함으로써 산업구조의 변모를 초래할 것임.
  - 소득탄력성이 높고, 다양하며, 제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고, 브랜드 이미지가 높은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가 크게 늘어날 것임.
  - 수요가 크게 늘어날 분야도 현재의 소비재부문 중심에서 요트나 자가용비행기, 이동식 간이주거 등의 비소비재부문에 까지 확대될 것임.

## III. 韓國경제의 現位相과 21세기 비전

### 1. 韓國경제의 現위상

- 우리나라는 경제개발계획을 추진한 이래 연평균

10% 이상의 고도성장을 지속하여 후발개도국수준에서 벗어나 중진국이 되었으며 이제는 중진국 중 선진국권에 가장 근접한 나라로 평가받고 있음  
 -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GNP를 기준으로 할 때 70년대 전반기까지만 해도 세계 33위였으나 1989년 15위로 격상됨.

- 선진 7개국(G7)과 비교해 볼 때 1970년 7개국 평균 GNP 규모의 3.0% 수준에서 1989년에는 11.9%로 높아져 선진국과의 경제규모의 격차도 크게 줄어 들었음.

○ 한편 수출지향형 공업화를 적극 추진함에 따라 수출은 지난 20년동안 연평균 2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보여 1970년 8.3억달러에 불과하던 수출은 1977년에 100억달러를 달성하였으며 1990년 말 현재 650억달러로 곧 1,000억달러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음.

- 이에 따라 수입을 포함한 총교역액규모는 1970년 세계 41위에서 1989년에는 세계 11위로 지위격상이 이루어졌음.

○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 산업의 경쟁력이 현저히 약화됨에 따라 그간 성장의 견인차 역할을 하였던 수출이 부진하고 수입이 증대되어 무역수지가 흑자에서 적자로 전환되었으며 최근에는 그 적자폭이 더욱 커지고 있어 앞으로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 경제의 진로와 관련된 큰 경종이 되고 있음.

<표-4>

우리나라의 무역수지 추이

(단위 : 百萬달러, %)

	수 출		수 입		무역수지
	금 액	증 가 율	금 액	증 가 율	
1988	60,696	28.4	51,811	26.3	8,885
1989	62,377	2.8	61,465	18.6	912
1990	65,016	4.2	69,844	13.6	-4,828
1991.1~9	50,864	8.9	60,505	21.8	-9,641

<자료> 한국무역협회

주 : 1) 통관기준임

2) 증가율은 전년동기비임

음.

○ 이와 같은 국제경쟁력의 약화는 국내임금급등, 금융비용 및 물류비용부담 등에 의한 生産코스트의 상승과 기술개발의 부진, 生産性的 저위등이 복합적으로 작용된 결과라 할 수 있으나 우리가 특히

<표-3>

韓國경제 위상 (1989)

		생산액순위	교역액순위
미	국	1	1
일	본	2	2
독	일	3	3
프	랑	4	4
이	탈 리	5	6
영	국	6	5
캐	나	7	7
중	국	8	14
이	란	9	46
스	페 인	10	13
브	라 질	11	21
인	도	12	31
호	주	13	18
네	덜 란 드	14	8
한	국	15	11
스	위 스	16	15
스	웨 덴	17	16

<자료> 한국은행, 세계속의 한국경제, 1991

주 : 1) 소련은 통계미비로 제외되었음.

2) 교역액순위중 9위(벨기에), 10위(홍콩), 12위(대만), 17위(싱가폴)임

- 경쟁력의 총체적 지수라고 할 수 있는 선진국시장에서의 우리나라의 시장점유비중도 갈수록 떨어져 예컨대 美國市場에서의 우리나라의 점유비중은 1989년 4.2%에서 1990년 3.7%, 1991년 1~6월에는 3.4%로 계속 저하되고 있

간과해서는 안될 것은 국제분업구조의 재편과정에 적절히 적응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을 것임.

- 선진국들은 고기술중심의 산업구조로 급격히 이행하면서 과거 고임금 등으로 경쟁력이 약화

<표-5>

선진국시장에서의 우리나라의 시장점유비중 추이

(단위 : %)

	美 國			日 本		
	1989	1990	1991. 1~6	1989	1990	1991. 1~6
한 국	4.2	3.7	3.4	6.2	5.0	4.0
대 만	5.1	4.6	4.5	4.3	3.6	4.0
중 국	2.5	3.1	3.2	5.3	5.1	5.4
A S E A N	-	-	-	11.7	11.9	-

<자료> 한국무역협회

되었던 섬유, 조선등의 업종에서 첨단기술의 응용점목을 통해 고부가가치화, 고기능화를 달성하여 이들 산업분야에서도 점차 경쟁력을 되찾고 있는 실정임.

- 또한 태국, 인도네시아, 중국등 저임금을 바탕으로 한 후발개도국의 추격이 급속히 이루어지고 있어 섬유, 신발, 전자, 자동차 등 우리의 주력수출산업의 해외지위가 점차 축소되고 있는 형편임.

○ 이것은 과거 3低 호황으로 매우 들뜬 분위기속에서 미래에 대응한 기술개발투자 및 원가절감을 위한 투자를 게을리하여 국제분업구조변화에의 적응력을 배양시키지 못한데서 기인함.

- 격동하는 국제경제사회에서의 잠시의 휴식은 거북이와 토끼의 경주로 비유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작금의 수출부진상황에서 느낄 수 있을 것이므로 기업가나 근로자 모두 경제하려는 의지를 되살려 미래에 대한 대비책을 철저히 해야 할 것임.

## 2. 21세기 韓國경제의 비전

### 가. 선진경제로의 진입

○ 21세기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의 발전을 토대로 2차대전 이후 후진국에서 선진국의 대열에 동참하는 유일한 나라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우리 경제활동의 영역은 돌이킬 수 없는 세계적인 조류가 되고 있는 화해의 물결에 따라 명실상부하게 전세계로 확대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더욱 심화될 것임.

- 사회주의 경제권의 서방경제로의 편입은 우리 경제의 활동범주를 자본주의 경제권과 사회주의 경제권을 포괄한 전세계로 확장시켰음.

- 가시화되고 있는 통일환경의 조성 과 UN 동시가입에 따른 남북한간의 외교적인 대치상태의 완화는 국가경제에 대한 외교 및 경제적인 부담을 크게 경감시킬 것으로 전망됨.

○ 우리경제는 2000년까지 연 7~8%의 성장을 이룩하면서 고도산업사회로 진입하여 G7에 근접하는 경제선진국이 될 것으로 전망됨.

- 최근 대내외 산업환경의 악화로 다소 제조업의 경제적인 활력이 약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제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 및 기업의 노력이 가시화되면 종전의 활기를 되찾을 것임.

- 2000년에는 국민총생산액(經常) 554兆원, 1인당 GNP 1만7천달러 수준의 경제규모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수출입규모는 2000년까지 약 3,300억달러 수준으로 늘어날 것이며 경상수지는 GNP의 1.5~2.0% 정도의 수준에 이를 것임.

### 나. 선진국형 산업구조의 형성

○ 최근 세계적으로 기술혁신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의 재편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음.

○ 우리나라는 지난 60년대초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시작한 이래 제조업 중심의 산업구조고도화 정책을 추진한 결과 산업구조의 고도화가 이루어져

<표-6> 우리나라의 산업구조 추이

	1960	1970	1980	1990
농림수산업	36.8	26.9	14.9	9.1
제조업	13.8	20.9	29.7	29.2
서비스業	47.3	50.7	54.1	61.3

<자료> 韓國銀行, 국민계정, 1990

주: 1) 부가가치 생산액 기준임

2) 경상가격기준임

3) 1차 및 전기가스수도사업은 서비스업에 포함



- 왔음.
- 또한 최근에는 제조업중에서도 중화학공업 비중이 높아져 산업구조의 심화가 진전되고 있음.
    - 80년대 주요업종별 성장을 추이
      - 제조업중중화학공업비중(경상가격기준, %):  
1983      1985      1990  
55.1 → 56.7 → 62.1
      - 섬유, 철강, 조선, 석유화학, 중전기, 시멘트: 제조업평균 이하의 저성장
      - 자동차, 반도체, 컴퓨터, 정밀화학, 카메라: 제조업평균 이상의 고성장

- 한편 향후의 산업구조변화는 현재의 기술혁신추세의 가속화로 기술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전개될 것으로 전망됨.
  - 기술집약산업의 확대와 메카트로닉스화
    - 향후 異種기술간의 융합화와 현재 급격히 진전되고 있는 정보화추세에 따라 전자기술이 응용된 尖端産業의 비중이 제고될 것으로 전망됨.
  - 서비스 산업의 질적 고도화
    - 금융, 보험, 운수 등의 생산적 서비스의 중요성과 산업상의 비중이 더욱 증대할 것으로 전

〈표-7〉 21세기 韓國경제의 총양지표

	1990	1993	1996	2000 <sup>1)</sup>
국민총생액(경상, 兆원)	168	257	357	554
국민총생액(경상, 억달러)	2,379	3,545	4,926	7,644
1인당 GNP(경상, 달러)	5,569	8,054	10,908	16,927
경제성장률(불변, %)	9.0	8.0	7.2	7.2
국제수지 <sup>2)</sup> (억달러)				
경상수지	22	10(0.3)	75(1.5)	(1.5~2% 내외)
무역수지	20	37	25(0.5)	(1.5~2% 내외)
수출	631	942	1,365	-
수입	651	980	1,340	-

〈자료〉 經濟企劃院, 7차 5개년계획, 1991. 7

주: 1) 1차 5개년계획 수치의 연장

2) ( )内는 GNP 대비 比重임.

망됨.

- 제조업의 소프트화
  - 각종 재화의 생산에서 원재료, 에너지 등 물적재화의 생산에서 원재료, 에너지 등 물적재화의 비중이 점점 제고되는 현상인 소프트화가 급진전될 것임.
- 노동집약산업의 사양화와 고용구조의 고도화
  - 인력을 대체할 수 있는 産業用로봇의 개발과 공장자동화의 진전에 따라 향후 생산시장에서의 人力의 비중은 점차 줄어드는 추세를 보일 것임.
  - 이에 따라 생산요소로서는 단순노동력의 중요성은 점차 낮아지고 지식 기술능력의 수요는 확대될 것임.

- 이러한 산업발전 방향을 감안할 때 우리나라의 산업구조는 제조업, 특히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한

중화학공업의 발전을 바탕으로 선진국형 산업구조로 이행될 것임.

- 산업의 성격별로 보면 기술집약도가 높은 산업의 비중이 증대되는 산업구조의 기술집약화가 크게 진전될 것임.

〈표-8〉 산업구조전망

	1986	1995	2000
농 립 수 산 업	10.6	8.5	7.5
광 업	0.9	0.9	0.5
제 조 업	30.9	34.2	34.6
중 화 학 공 업	18.8	23.4	24.2
경 공 업	12.1	10.8	10.3
서 비 스 업	57.1	56.4	57.4
計	100.0	100.0	100.0

〈자료〉 韓國産業銀行, 2000년대의 산업구조 전망, 1989

주: 1) 1986년 불변가격기준임.

2) 부가가치 생산액기준임.

〈표-9〉 제조업의 기술집약화 전망

	1986	1995	2000
노동집약적산업	41.1	35.4	35.3
자본집약적산업	46.4	50.4	48.5
기술집약적산업	12.5	14.2	16.2
計	100.0	100.0	100.0

〈자료〉韓國産業銀行, 2000년대의 산업구조전망, 1989  
 주: 1986년 불변가격, 부가가치 기준임

- 제조업의 경우 기술수준 향상과 소재 및 신기술개발이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기계, 전기 전자, 자동차, 정밀기계 등 기계류 생산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중화학공업의 생산비중은 크게 증가할 것임.  
 - 반면에 고임금추세 및 후발개도국의 추격 등으로 가격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섬유, 목재, 기타 제조업(완구) 등 경공업부문의 생산비중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됨.
  - 서비스업의 경우 사회전반적인 정보화 및 서비스화 추세에 힘입어 금융 통신관련 서비스의 비중은 크게 증가하여 서비스부문내에서의 구조고도화가 급속히 진전될 것임.
- 다. 경제의 국제화 진전
- 향후 21세기의 세계경제는 교통·통신수단의 획

기적인 발달에 따른 지역적인 제약의 해소, 공산권경제의 시장경제로의 편입, UR 협상과 같은 다자간협상을 통한 세계공통의 무역규범의 정립에 따라 명실상부한 하나의 세계가 될 것으로 생각됨.

- 우리 경제는 높아진 세계경제에서의 위상을 바탕으로 세계경제질서의 형성에도 지금까지의 수세적이고 추종자적인 입장에서 개방화와 공정한 국제교역규칙을 선도하는 국가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임.  
 - 세계시장에서 차지하는 우리의 교역비중이 계속 확대되고 21세기에는 OECD 가입 등으로 국제적 위상이 더욱 제고될 것임.  
 - 관세 및 비관세 장벽 등 대외무역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들은 철폐되고 外換 자본거래도 자유화가 이루어 질 것임.  
 - 현재 날로 심화되고 있는 지역주의화에 대응하여 현지생산, 기술수출 및 자원개발 등을 통하여 동남아시아국가 등 후발국과의 협력관계가 더욱 확대될 것임.  
 - 높아진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바탕으로 전기·전자, 기계, 석유화학등의 첨단산업기술을 중심으로한 선진국과의 수평적 분업관계도 활성화 될 것임.

〈표-10〉 제조업 해외직접투자 잔액추이

(단위: 건, 천달러, %)

	1990		1991. 8월말		증가율 <sup>1)</sup>	
	건수	투자금액	건수	투자금액	건수	투자금액
광업	22	446,718	24	476,734	20.0	13.6
제조업	11	77,570	11	76,882	0.0	-2.9
수산업	48	87,752	60	98,881	33.3	21.3
제조업	498	1,061,402	647	1,348,325	49.4	48.1
건설업	61	51,924	61	53,165	0.0	2.3
운수보관업	36	6,728	39	10,218	18.2	80.8
무역업	451	410,296	516	588,508	21.4	73.0
기타	99	155,268	126	213,691	34.0	54.6
부동산	17	38,022	18	42,701	12.5	25.4
計	1,243	2,335,680	1,502	2,909,105	32.0	41.2

〈자료〉韓國輸出入銀行, 海外投資情報, 1990~91  
 주: 1) 1990년 8月末대비 증가율임

- 기업의 활동영역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확대하며 대기업의 다국적기업화도 예상됨.  
 - 기업활동은 우리나라라는 국가의 테두리를 벗

어나 보다 유리한 조건에 경영자원을 조달할 수 있는 지역으로 그 중심을 이동할 것임.  
 - 국내기업의 국제화도 해외투자를 통한 현지생

산 중심에서 기술협력 및 산업인력의 이동 등으로 까지 확대될 것으로 보임.

- 우리나라의 해외직접투자는 최근에는 임금인상, 통상마찰 등 산업환경 악화에의 대응을 위한 투자가 주류를 이루고 있으나 향후에는 기업경영의 국제화차원에서 투자가 더욱 늘어날 것임.
- 1991년 8월말 기준 우리나라의 해외투자잔액은 전년동기대비 41.2% 증가한 2,909백만달

러를 기록하였음.

- 제조업중에서는 섬유·의류, 전기·전자, 봉제 완구 등이 임금인상과 선진국의 통산압력을 회피하기 위하여 해외직접투자를 활발히 전개하였음.

라. 통일국가시대의 거래

-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의 등장 이후 급격히 진전되고 있는 동서간 화해의 물결은 남북한간의 관계

<표-11> 南北韓 경제지표 비교

	韓 國	北 韓	計
인 구(만 명)	4,279	2,172	6,451
G N P(億달러)	2,379	231	2,610
1인당 GNP(달러)	5,569	1,064	4,045
수 출(億달러)	650.2	20.2	670.4
수 입(億달러)	698.4	26.2	724.6
외 채 총액(億달러)	317	78.6	395.6

<자료> 국토통일원, 1990 북한경제종합평가, 1991  
주: 1990년 기준임

<표-12> 對北韓 물자교류 승인현황

(단위: 건, 천달러)

		1988	1989	1990	1991. 1~8	計
반출	건수	4	57	75	154	290
	금액	1,037	22,235	20,354	81,376	125,002
반입	건수	-	1	4	5	10
	금액	-	69	4,731	12,570	17,370

<자료> 商工部

에도 큰 영향을 미쳐 그동안 관념적인 차원에 머무르고 있던 우리나라의 통일이 점차 가시화되고 있음.

- 남북한간의 교류는 최근 남북한총리회담, 범민족 통일음악회, 남북탁구 및 축구단일팀 구성 등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마침내 91년 9월에는 南北韓 동시 UN 加入이라는 획기적인 성과를 올리게 되었음.
- 더욱이 공산권의 宗主國이었던 소련이 마르크스-레닌의 공산주의 이념을 포기함에 따라 북한도 조만간 개방화와 개혁의 세계적인 물결에 동참할 것으로 전망됨.
- 21세기에 들어 남북한의 통일이 이루어 진다면 GNP, 인구, 내수 시장규모 등 제반 경제지표들의 양적인 팽창이 예상됨.

○ 경제교류는 현재는 주로 三國間 교류의 형태를 띠고 있으나 점차 직교역의 차원으로 발전할 것으로 전망되며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북한의 주요 교역파트너로 등장할 것임.

- 1988년 이후 본격화된 남북경제교류는 1991년 들어 급증하고 있어 1991년 1~8월중 반입액은 81,376천 달러, 반출액은 12,570천 달러로 1990년까지 누계의 2배에 달함.
- 교역품목은 현재와 같이 우리나라는 가전, 생필품 등 공업제품을 수출하고 북한의 광산물 등 천연자원을 수입하는 현재의 양상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 향후에는 UNDP 주관하에 추진되고 있는 북한의 두만강유역개발계획에 우리나라가 참가하는 등 남북한간의 경제교류는 더욱 활성화될 것임.

〈표-13〉

對北韓 물자교류 승인현황

(단위 : 천달러)

반		입	반		출
아 연 괴		31,782	석유화학원료		6,250
철 강 재		10,309	테 트 론 솜		2,450
열 연 코 일		10,291	양 말 직 조 기		2,188
금 괴		7,167	농 업 용 비 닐		1,283
무 연 탄		6,919	고 유 황 경 유		845
한 약 재		6,809	세 탁 비 누		760
시 멘 트		5,986	직물(작업복용)		620
감 자		4,531	합 성 직 물		560
냉 동 조 기		4,220	컬 러 T V		240
냉 동 명 태		4,160	냉 장 고		200
기 타		32,828	기 타		1,974
합		125,002	합		17,370

〈자료〉 商工部

주 : 1988. 11 ~ 1991. 7까지 실적임

#### IV. 21세기를 향한 우리의 대응

##### 1. 산업의 장기발전을 위한 구조조정 강화

- 21세기 산업사회는 기술 라이프사이클의 단축화 경향에 따라 산업의 浮沈現象이 커질 것이므로 이에 대응한 적기의 산업구조조정이 무엇보다도 중요시될 것임.
- 현재의 성장주도산업이 기술변화나 국제분업구조의 재편과정에서 적응력을 갖출 수 있도록 신제품생산용 시설확장이나 연구개발투자등을 게을리 하지 말아야 할 것임.
- 비교첨단산업의 경우 선진국에서와 같이 첨단 기술, 자동화기술 등을 새로이 응용 접목하여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의 재편을 유도하거나 또는 종업원 재훈련자금지원, 노후시설 개폐자금 지원등을 통해 업종전환을 적극 유도해나가야 할 것임.
- 특히 성장산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육성하여 21세기 국내산업의 발전을 신성장산업이 주도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21세기 국내산업의 주요성장산업은 생산과 수요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시켜야 할 것으로 보임.
- 생산측면에서 요구되는 조건으로는
  - 생산자동화의 적용이 용이한 산업일 것

- 새로운 기술변화에 능동적인 산업일 것
- 국제분업화의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산업일 것
- 혁신적 요소절약산업일 것 등임.
- 수요측면에서는
  - 제품이 공급초기단계로서 향후 수요확대소지가 클 것
  - 제품의 개량개선에 의해 새로운 수요를 창출할 수 있을 것
  - 타산업에의 기술파급효과가 클 것
  - 소프트웨어 부품의 공급 관리 등을 통해 수요확산이 가능할 것
  - 세계시장에서의 과점적 시장지배력 행사가 가능할 것 등임.
- 이러한 기준에 따라 향후 성장가능성이 높은 유망산업을 선정하면 첨단기술산업, 일반기계, 자동차, 산업용전자 등을 들 수 있음.
- 이와 함께 현재 우리나라 산업구조의 가장 큰 취약성의 하나로 지적되고 있는 자본재 및 상품소재공업의 낙후성을 개선하는데 노력해야 할 것임.
- 국내 자본재공업, 상품산업의 취약성 때문에 양질의 수출제품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득이 외산기계의 도입과 부품도입이 계속되고 있어 수출증가는 곧 수입증가로 연결되는 결과를 초래함.
- 특히 자본재공업 및 부품소재공업의 육성은 대

<표-14>

향후 유망성장산업

	성 장 요 인
첨 단 산 업	신기술적용, 혁신적 요소절약, 보급초기단계, 신수요 타산업에의 적용
산 업 용 전 자	신기술적용, 보급초기단계, 타산업에의 응용
가 정 용 전 자	생산자동화, 신기술적용, 생산분업화, 신수요
기 계	생산자동화, 신기술적용, 생산분업화, 신수요 타산업에의 응용
자 동 차	생산자동차, 신기술적용, 생산분업화

일무역적자문제를 해소하는 면에서도 중요한 의미가 있지만 앞으로 국제분업재편과정에서의 우리의 위상정립과도 중요한 관계가 있음.

- 현재와 같은 소비재중심의 수출상품으로는 선진국과의 무역마찰을 더욱 격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저임개도국과의 가격경쟁의 심화로 출혈수출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므로 자본재, 부품중심의 수출산업화를 적극 추진해 나가야 할 것임.

- 이와 같은 자본재산업등은 기술 자본집약적인 특성을 갖고 있어 장기적인 계획하에 실효성 있는 육성정책의 추진이 필수적이라할 수 있음.

- 수요의 개성화, 다양화, 고급화 추세에 따라 21세기 산업사회의 주된 생산방식이 될 多品種 少量生産方式(Lean Production)에 대응한 생산, 재고관리 시스템의 개발을 위한 노력을 한층 강화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생산체제도 보다 신축적인 FMS(Flexible Manufacturing System) 체제 등으로 변환되어져야 함.

- 환경오염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크게 늘어날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투자수요증대에 대비한 기업차원의 대응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 21세기에 그 시장 규모가 급격히 커질 환경오염 방지산업에의 참여를 위한 신제품의 개발 등에도 기업과 정부의 합심노력이 필요할 것임.

- 환경오염과 관련된 제품의 생산과 수출입은 향후 크게 어려워 질 것이므로 이에 대응한 대체물질과 대체제품의 개발에도 적극적인 노력을 추진하여야 할 것임.

2. 산업체질강화를 통한 경쟁기반확립

- 앞에서와 같은 구조적인 조정노력과 함께 우리 산업의 체질강화를 위한 현상적인 문제의 치유에도 한층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우선 당면한 제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존제품 중심의 투자보다는 신제품의 개발과 생산을 위한 투자 및 생산성향상을 위한 자동화투자 등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투자패턴의 전환이 적극 유도되어야 할 것임.

- 이와 함께 부동산투기와 불건전한 서비스업분야로의 자금유입을 제조업 등 생산자금쪽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자금 흐름의 조정을 위한 정책적인 노력도 지속되어야 할 것임.

- 또한 우리경제의 체질강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기술수준의 향상이 이루어져야 하는바 해외선진기술의 도입을 적극화하는 한편 자주적 기술개발을 강화하여 기술고도화시대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임.

- 우리나라의 기술수준을 선진국과 비교해 볼때 설계기술의 경우 5~10년, 가공기술 2~3년, 열처리 5년, 제어 3~5년, 시험검사 5년, 조립 2~3년, 생산성 3~5년정도의 기술격차가 있는 것으로 조사됨.

- GNP 대비 연구개발비도 미국 2.59%, 일본 2.62%에 비해 우리나라는 1.92%에 머물고 있으며 제조업 기준으로 본 기업의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의 비율도 미국 4.7%, 일본 3.2%에 비해 우리나라는 2.14%에 불과한 실정임.

- 이러한 비율의 경우 언뜻 보기에는 그 비율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분모가 되고 있는 GNP 또는 매출액규모의 차이를 감안

하면 실제 연구개발비로 지출되는 규모는 매우 큰 차이라 할 것임.

### 3. 금융산업개편촉진

- 21세기에 경제규모가 커짐에 따라 첨단산업육성, 연구개발투자, 공해방지시설투자 등을 위한 산업 금융수요는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전망됨.
  - 이러한 새로운 산업금융수요를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국내 금융산업의 발전기반을 한층 공고히 해야 할 것임.
- 또한 금융국제화, 금융증권화 추세가 한층 가속화되고 UR 協商, 韓美 금융협상의 예에서 보듯 국내 금융시장의 개방화가 본격적으로 전개될 것임에 비추어 앞으로 우리 금융산업의 경쟁력제고가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음.
  - 특히 최근 선진각국의 경우 과거의 보수적인 건전신용질서유지중심의 금융제도 운용에서 자국 금융산업의 대외경쟁력 확보를 우선적으로 중시하여 겸업확대 및 금융자유화 촉진 등 금융개혁을 서두르고 있는 실정임.
    - EC의 경우 겸업주의를 통합된 EC 금융제도의 기본틀로 하는 한편 보험분야까지 포함하는 금융업무의 광역화를 한층 촉진
    - 미국의 경우 엄격한 분업주의에서 은행의 증권업무진출폭을 넓히는 한편 州間 지점설비 제한 완화, 예금보험제도의 개편 등을 목표로 금융개혁안을 심의중임.
    - 일본도 EC 금융통합을 계기로 겸업확대 및 경쟁력 확보 방향으로 전문금융제도의 틀을 개혁하기 위해 현재 大藏省에서 최종개혁안을 마련중이며 1993년부터 시행할 예정임.
- 따라서 국내 금융산업도 국내외 금융환경변화에 신속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존업무영역의 확충과 금융자유화 확대 등 금융산업의 획기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봄.

### 4. 국제화시대, 통일시대에 대한 대응노력강화

- 앞으로의 세계는 공통적인 문화, 생활양식이 커지면서 생산, 소비 등 경제행위가 국경장벽을 넘어 활발하게 전개되어 이른바 국경없는 세계 (Borde-

less World)가 도래할 것임. 이러한 국제화 개방화시대에 대비하여 국민의 의식구조의 전환 및 UR 협상등 세계경제질서의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시장개방 및 대미수출과 관련한 韓美간의 통상 마찰 등에도 수세적인 자세로 대응하기 보다는 공격이 최상의 방이라는 적극적인 자세로 임하여야 할 것임.
- 시장개방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수입대항력제고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분야의 경쟁기반을 한층 강화하여야 할 것임.
- 급변하는 국제정세에 관련된 정보의 분석 및 연구를 강화하여 사전적 대응체제를 갖추어 나가는 것이 중요함.
- 세계경제에서 그 위상이 급격히 높아 지고 있는 환태평양경제권 국가들과의 협조체제를 더욱 강화하여야 할 것임.
  - 아세안제국과의 경제교류를 촉진함으로써 환태평양경제권역내에서의 경제협력강화를 위한 일차적인 교두보를 마련하여야 할 것임.
  - 장기적으로는 환태평양경제권의 창설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함으로써 세계적인 경제의 지역주의화추세에 대응하기 위한 수단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환경오염방지에 대한 세계적인 관심이 높아 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제적인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노력에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의 생활터전의 보호를 위한 노력을 강화하여야 할 것임.
- 한편 21세기에는 대망의 통일시대가 도래할 것임에 비추어 통일시대에 대비한 사전적인 준비에도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임.
  - 남북한간의 물자교류 및 두만강개발사업 등에도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북한지역의 경제발전을 측면지원하는 의연한 자세를 보여야 할 것임.
  - 아울러 통일시대에 닥칠 문제들 예컨대 현재 독일이 겪고 있는 실업문제, 산업의 재편문제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통일을 기점으로 국력의 감퇴가 아닌 제도약의 기틀을 이룰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기울여야 할 것임.